

## 긴급진단-‘복마전’ 턴키입찰 이대로 좋은가

검은거레 실태

# 심사위원 공개...연줄·금품 동원 사활 건 로비

## 교수·공무원·업체 커넥션 각종 비리 양산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적잠시시설의 입찰 비리는 턴키 입찰이 도입된 이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검은 거래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국토해양부가 턴키 입찰 선진화 방안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실사 20일 전 심사위원 명단 및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 하지만 인맥이나 화맥 등을 모두 동원한 업체와 금품에 쉽게 넘어가는 심사위원 간 ‘끈끈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지검이 지난해 하반기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구속 또는 불구속된 업체 관계자, 공무원, 교수 등은 모두 23명이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 규모는 30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며, 이는 광주시청 개청 이래 단일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의 윤모(52) 상무는 28억7300만원에 설계용역을 체결한

업체 4곳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받아 ‘로비 자금’을 만들었다. 이 중 6000만원을 자신의 부하직원들을 통해 예비심사위원과 심사위원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돌렸다. 눈여겨볼 대목은 2000만원을 받고 대림산업에 7점 만점을 준 전남대 박모(52) 교수의 행적이다.

예초 시공사에서 탈락한 금호산업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제시한 대림산업을 선택한 것이다. 또 박 교수는 심사 후 다시 이 금호산업 관계자를 만나 500만원을 받았다. 받은 돈은 모두 5만원권 지폐로, 현금이었다. 일단 선수금으로 일

부만을 받고 추후 더 큰 액수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또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반모(59) 서기관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전해준대림산업에 1만 달러를 받았고, 시공사 선정 후에는 자신이 아는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대림이 아닌 다른 컨소시엄에 만점을 줬다. 이 외에도 복수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심사위원도 있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15명(소위원 제외) 모두 특정업체에 만점을 매겨 준 역할을 호소하며 지역민에게 직접 심판받겠다는 각오 아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턴키 입찰 관련 비리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4대강 사업 대상지에서도 턴키 입찰 문제는 꾸준히 거론된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업체 상층부에서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해도 (턴키 입찰 비리)진실에 70% 이상 다가가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턴키(Turn-key) 입찰=시공자가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 과정을 맡게 되는 공사계약 방식. 키(열쇠)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일괄수주 계약이라고도 한다.

## F1 개최권료 할증 없었다

### 전남도 협상...스폰서십 분배 50대50으로

올해 열리는 ‘F1(10월 12일~14일) 코리아그랑프리’부터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내지않는 등 비용 23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당초 개최권자와 F1매니지먼트(FOM)가 각각 25%, 75%로 나눠 가졌던 스폰서십 분배 비율을 각 50%로 조정했고, 식·음료 공급권도 넘겨받아 전반적인 F1의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적자폭이 상당부분 줄어, ‘해마다 600억원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대회를 치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5년간 최대 2200억원 절약 =전남도가 15일 발표한 FOM과의 협상 내용의 골자는 대회 개최

비 가운데 TV 중계권료와 원천세, 할증료 면제다.

할증료는 개최권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증액하게 돼 있는 규정인데 폐지했고, 프로모터 지유도 카보(KAVO)에서 조직위원으로 변경했다.

박준영 지사는 “신규 확보된 국비 50억원에 마케팅 수입 57억원, 기금 10억원 등 117억원의 수입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69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관 전남도의회는 16일 임시회를 통해 전남도가 제출한 올해 F1대회 개최권료 지급을 위한 금응기관 신용장(L/C) 개설을 심의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무소속 돌풍’ 가시화

### 광주·전남 민주 예비후보 20여명 출마 전망...단일화도 변수

민주통합당의 광주·전남 지역구 후보 공천이 서구 갑과 무안·신안을 제외하고 마무리 된 가운데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어 총선 구도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광주에서는 민주통합당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재국(서구 을), 조영택(서구 갑)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영진 의원(서구 을)과 박고인 의원(동구)도 무소속 출마 선언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전남에서도 경선 컷-오프에서 고배를 마신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비례대표인 김충조 의원은 여수 갑에서의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대 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통합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경진(북구 갑), 송갑석(서구 갑), 서대석(서구 을), 김병전(영암·장흥·강진), 김철근(고흥·보성) 예비후보 등도 경선 컷-오프 탈락의 역풍을 호소하며 지역민에게 직접 심판받겠다는 각오 아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들의 규모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 2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당선 가능성,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바람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경선이 투신 자살 사태를 부르고 각종 불·탈법을 통한 동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

역 민심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국민 경선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모두 승리한 점에 대해서도 눈길도 보이지 않는다. 민심보다는 정치적 득실에 의해 공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3~4명의 무소속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강은태, 박준선, 이정일 후보가, 18대 총선에서는 강은태,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 후보 등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당장, 광주에서는 서갑과 서을에서, 전남에서는 해남·진도·완도, 고흥·보성, 강진·장흥·영암



중외공원 흥매화 만개 광주지역 낮 최고온도가 16도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해진 15일 흥매화가 만개한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서 주민들이 그윽한 매화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등에서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 수 있다고 본다”며 “최소한 2~3명의 무소속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오랜기간 & 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품격 ₩139,000~ 실속 ₩99,000~  
장흥-제주도  
품격 ₩159,000~ 실속 ₩12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수송비(광주-목포&장흥)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2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13,200)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울릉도 2박 3일 ₩325,000~  
1박 2일 ₩294,000~  
홍도, 흑산도 1박 2일 ₩165,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동나무온도 (출발확정) ₩369,000  
출발일: 4/4, 22, 5/1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일본 전통료칸 스키유 마을 온천 즐기기 ₩459,000  
출발일: 4/4, 22, 5/1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519,000  
출발일: 4/4, 22, 5/9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5일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899,000  
출발일: 4/24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뜰 ₩839,000~  
실속 ₩789,000~  
품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포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10\$),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59 무안-북경 (\*4/6-출발확정) ₩699,000~  
49 무안-북경/평요/면산 4일 ₩869,000~  
59 무안-북경/평요/면산 5일 ₩919,000~  
49 무안-상해/장가계 4일 (\*4/23-출발확정) ₩899,000~  
불포함: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59 무안-상해/장가계 5일 (\*4/19-출발확정) ₩1,150,000~  
※광주 출도착, ALL포함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증명서 발급 / 여행계약 기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기입(예외상황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회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